"'전복면장' '멸치읍장' 찾습니다"

완도군 도·농간 교류 활성화 위해

대도시민 대상 명예이장 등 공모

전국 최고의 청정해역을 자랑하는 완도군이 농어촌 사랑의 일환으로 '웰빙고향 갖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완도군은 최근 도·농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대도시 지역 사회단체장과 통장, 아파트단지 부녀회장 등을 대상으로 명예면장, 명예이장을 공모하고 있다.

특히 명예면장, 명예이장은 행정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완도의 특산품 이름을 사용, '전복면장', '넙치이장', '유자면장', '다시마 이장' 등으로 정했다.

공모지역은 완도읍 멸치 읍장, 약산면 흑염소 면장, 금일읍 다시마 면장, 청산면 마늘 면장, 노화읍 전복면장, 소안면 해태 면장, 군외면 방울토마토 면장, 금당면 문어 면장, 신지면 넙치 면장, 보길면 톳 면장, 고금면 유자 면장, 생일면 미역 면장 등 12개 읍·면이다.

김종식 완도군수는 "활동력이 있는 서울 등 대도시 사회 단체장, 아파트단지 부녀회장, 통장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 우선 30명을 명예면장, 이장으로 위촉할 계획이다"면서 "이 제도가 잘 운영되면 노령화로 인해 갈수록 활력을 잃어가는 농어촌이 생기를 되찾을 수 있고 도시민들에게는 웰빙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명예면장, 이장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반응이 좋을 경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무안군 '서남권 발전계획' 핵심사업 31건 발굴

물류산업 육성·인프라 등 사업비만 총 20조원 달해

무안군이 정부의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에 반영시킬 31건의 핵심 사업과 인프라를 발굴했다.

발굴된 주요 사업은 항공물류산업단지 조성 등 물류산업 육성 4개 분야에 3조1천473억원, 한·중 국제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특화분야 6개 사업에 2조264억원, 무안기업도시-삼향 임성역 전용철도 개설 등 인프라 구축 분야 11개 사업 12조7천852억원 등이다. 또 신재생에너지 분야 9천340억원, 국제복합면제 쇼핑단지 조성 등 복합관광 분야 4개 사업 1조5천482억원 등 모두 31개 사업에 20조4천411억원에 달한다.

무안군은 이번에 발굴한 사업들을 정부가 오는 5월까지 수립할 예정인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이들 사업들은 무안군청 태스크포스 팀과 민간인 전문가 등 17명으로 구성된 서남권 종합개발 계획 자문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이들 자무위원들은 관련 부서에서 제출된 안을 토대로 발굴과제의 적정성을 검토, 정부에 건의할 최종 31건의 과제를 채택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이들 핵심사업들이 정부 계획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무안=이원희기자 whlee@

순창 기상관측소 올해안에 짓는다

순창지역에 빠르면 올해 안에 기상관측소가 설립된다.

순창 기상관측소는 지방자치단체와 기상청 간 상호 윈-윈 전략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에따라 기상청은 관측소 운영에 필요한 종사자 교육과 관측업무 관리 및 기술지도, 관측자료 수집을 위한 통신망(전용회선)구축 등을 맡게 된다. 순창군은 기상관측소 설치 및 관측장비의 유지·관리, 기상관측업무 종사자 임명 등을 맡는다.

순창지역에 기상관측소가 설치되면 겨울철 폭설이나 여름철 집중호우 등에 대한 예보 정확도 향상으로 군민재산과 생명 보호는 물론 장류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순창=이홍식기자 hslee@

제암산 철쭉 테마공원 장흥군 제암산 철쭉 테마공원에서 철쭉 평원을 잇는 임도 1㎞ 구간이 돌담으로 변신했다. 장흥군은 제암산 철쭉 행사와 연계한 새로운 볼거리 제공차원에서 돌담 구간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노인 일자리 사업

보성군 6억원 책정

보성군이 노인 일자리 제공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보성군은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예산으로 지난해보다 2억4천200만원이 증액된 5억9천400만원을 책정했다.

군은 ▲자연·거리환경 지킴이 ▲건강한 노인이 몸이 불편한 노인을 돕는 노-노 케어(老-老 care) ▲짚풀 공예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8일까지 참여인원 407명을 모집해 직무교육을 실시한 후 오는 19일부터 10월 말까지 7개월 동안 사업을 시행한다. 군 관계자는 "노인 일자리사업은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건강도 지키고 소득증대에도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며 "사업시행 후 자체평가를 실시, 문제점을 개선해 노인 일자리사업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안구일기자 giahn@

강진 대구면 '작은 도서관'

10평규모 2천여권 비치

강진군 대구면에 지난 2일 '작은 도서관' 이 문을 열었다. 〈사진〉

강진군 최초의 소규모 문화공간인 작은 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지원으로 복권기금을 활용, 그동안 노인들의 대화방 공간이었던 복지회관 1층에 개관했다.

대구면 작은 도서관은 10평 규모에 2천300여권의 각종 도서와 컴퓨터, 복사기 등의 시설을 갖췄다.

'작은 도서관'은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해 게이트볼, 서예교실, 풍물교실 등에 필요한 도서 구입으로 주민자치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이달부터 농업 관련 시설물 부담금 면제

"기존 축사도 부과금 철회를"

이달부터 농업 관련 시설이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법령 시행 초기에 건축했던 시설물에 대해서도 부과금이 철회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일선 시·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시행한 기반시설부담금제에 따라 연말까지 도내에서 농업시설에 부과된 부담금은 221건, 7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 부담금은 60평(200㎡)을 초과하는 신·증축 건물에 부과하는 것으로 농업시설도 일괄 포함돼 농업인들에게 큰 부담이 돼 왔다.

정부는 이같은 여론에 따라 시행 4개월만인 지난해 10월 축사와 퇴비사, 친환경농산물 유통·가공시설 등 농업 관련 시설은 부과를 제외하는 개정 작업에 들어가 이달부터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 시행 초기 건축한 농민들은 부담금을 납부할 수 밖에 없어 이에대한 반발과 체납이 속출하고 있다. 강진군의 경우 부담금 대상 29건중 교회 등을 제외한 25건이 축사와 퇴비사, 농자재 창고 등 농업시설로 모두 7천여만원이 부과됐다. 지난해 10월 축사 500여평을 증축한 김모(56)씨의 경우 1천900여만원이 통보됐으며 매달 1.2%씩 체납 가산금까지 부과되고 있다. 반면에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입법예고 뒤 취소한 농민들은 세금부과를 피하는 등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 새얼굴

"지식정보화 대비 글로벌인재 육성"

임 을 빈 나주교육장

"지식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일 부임한 임을빈(61) 나주교육장은 "지역의 문화적 교육적 인프라를 활용한 글로벌 문화 지식인 육성과 수요자 중심의 교육행정을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나주 금천 출신인 임 교육장은 조선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한 뒤 지난 69년 광주 동신중을 시작으로 교직에 입문해 전남도 교육청 중등장학관, 영광 교육장 등을 지냈다. 가족으로는 부인 안경자씨와 3녀.

/나주=정칠현기자 chjung@

"좋은학교 만들기에 온힘 쏟겠다"

신 경 우 무안교육장

"무안의 밝은 미래를 열어 갈 인재육성과 좋은 학교 만들기에 온힘을 쏟겠습니다"

신경우(60) 신임 무안교육장은 "학생 개개인이 바른 인성을 갖도록 하고, 한 학년동안 좋은 책 60권 읽기 운동 등 친절과 봉사의 교육행정을 펼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고흥출신인 신 교육장은 광주교대를 졸업했으며 순천 왕조초등 교장과 곡성 교육장 등을 지냈다. 가족으로는 한경순씨와 2녀가 있다.

/무안=이원희기자 whlee@